

# numbers 제 64호



## 주요 내용

2020. 09.18

1. 이번 주 주제 :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의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2. 1) 올 추석에 어른들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2)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음(87%)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http://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 일반 사회 통계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모든 이슈들이 코로나19에 함몰되어 있는 듯하다. 8월 하루 감염자가 수백 명씩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감정도 불안, 분노, 공포심이 점점 늘어만 간다. 경제도 잘 돌아가지 않아, 경제 활동자 중 무려 44%가 임금이 줄고, 실직하고, 무급휴직 상태이다. 이런 여파로 가구 소득이 줄어든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이나 돼, 가구내 살림살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일상생활은 코로나 이전을 100이라 할 때 현재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을 살고 있다.

코로나19가 우리사회를 강타한 후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제 64호는 2020년 9월을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국민 감정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편으로 경제적 형편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조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 코로나19 하면 떠오르는 단어, 남성은 '전염/감염', 여성은 '무서움/두려움'

- 코로나19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란 말을 듣거나 접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나 생각이 떠오르는지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남성은 '전염/감염' 19%, '마스크' 11% 등이 응답된 반면, 여성은 '무서움/두려움' 19%, '마스크' 15% 등이 높게 응답돼, 성별로 차이를 보임

[그림] 코로나19에 대한 자유 연상 내용(상위 5위) (%)

남성		여성	
전염/감염	19%	무서움/두려움	19%
마스크	11%	마스크	15%
무서움/두려움	8%	전염/감염	13%
중국	6%	불안	7%
불안	6%	폐질환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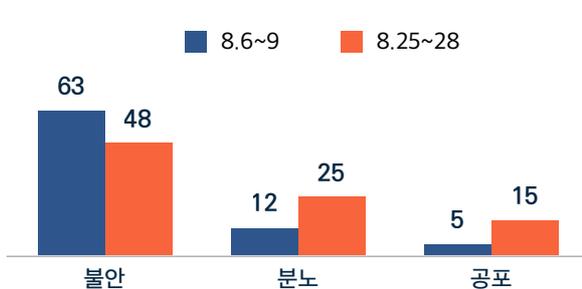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1차 조사,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 2020.08.25.~28.)

## ●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감정, 8월 한 달간 공포감 3배, 분노감 2배 증가

- 코로나19 이후 매일같이 국민들이 접하는 게 코로나19 관련 뉴스인데, 이와 관련, 코로나19 뉴스와 정보를 접하면서 어떤 감정을 가장 크게 느끼는지 8월초 조사와 8월말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공포감'은 5%→15%로 3배 증가하였고, '분노감'은 12%→25%로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불안감'은 8월 초 63%에서 8월 말 48%로 줄었으나, 여전히 국민 2명 중 1명 가까이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 코로나19 뉴스를 접하면서 '분노'를 느끼는 국민이 4명 중 1명이나 된다는 점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 감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임

[그림] 코로나19 뉴스와 정보를 접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상위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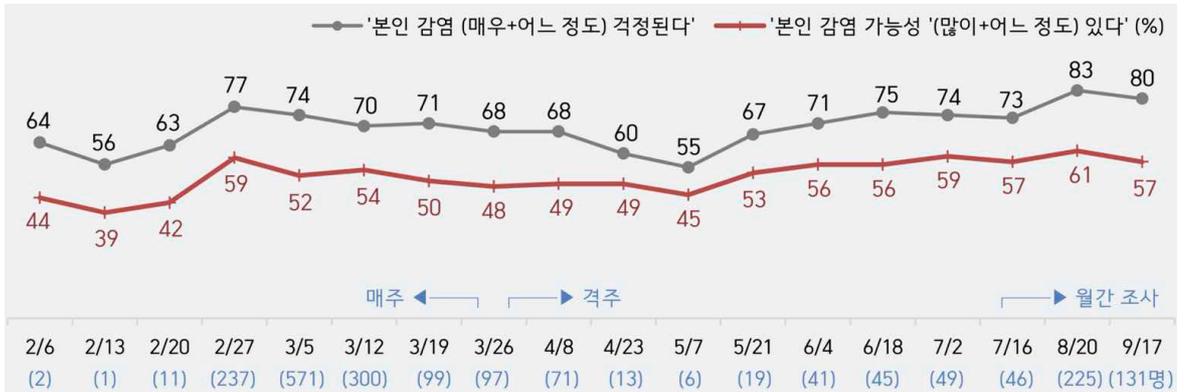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1차 조사,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 2020.08.25.~28.)

## ● 8월 말 이후 우리 국민의 '본인 감염 우려' 인식 최고조 수준

- 한국갤럽이 9월 18일에 발표한 우리 국민의 코로나19 관련 '본인감염 우려 정도'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를 보면, '본인 감염이 걱정된다'는 우려(80%)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코로나19 본인 감염 우려감과 감염 가능성 인식(8개월 추이) (%)



\*자료 출처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20년 9월 3째주, 2020.09.18.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전화면접조사, 2020.09.15.~17.)

\*\*Note : 1월 20일 국내 첫 확진 환자 발생. 위 괄호 숫자는 매 조사 기간 종료일 직전 7일간 질병관리청 발표 기준 일별 신규 확진자 수 평균

## ● 내가 속한 직장/종교에서 확진자 나올 것에 대한 두려움 64%

- 우리 국민 3명 중 2명 정도는 자신이 속한 직장이나 종교단체에서 확진자가 나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내 주변에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것 같아서 두렵다'는 응답은 64%, '감염이 의심되는데도 검사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봐 두렵다'는 응답은 57%로 각각 나타남

[그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두려움 (%)



\*자료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1차 조사,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 2020.08.2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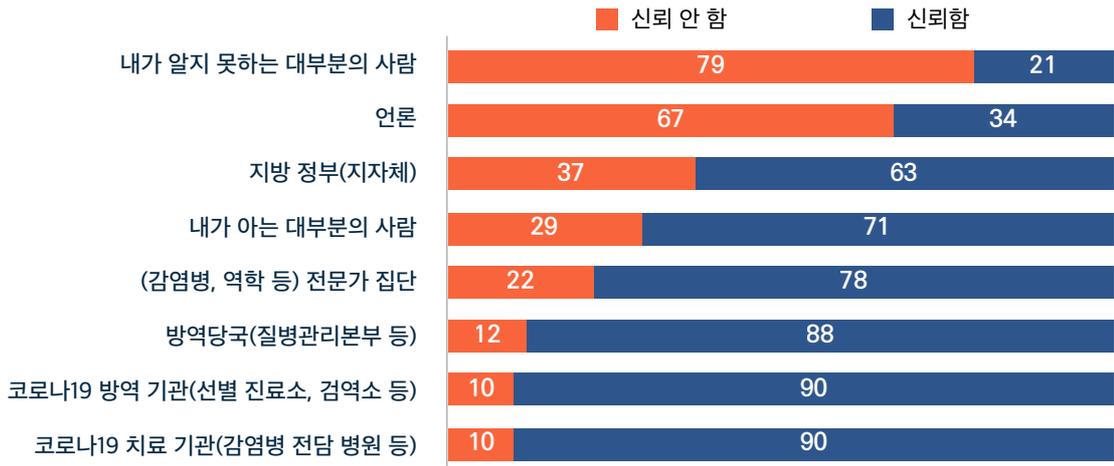
\*\*두렵다 : 매우+약간(5점 척도 질문)

## ● 코로나19 대응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 불신도 매우 높아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주체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해 보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21%(불신도 79%)로 제시한 주체들 중 최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는데, 이는 언론 신뢰도 34%보다도 낮은 비율임
- 방역 기관들의 신뢰도는 80%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임

[그림] 코로나19 대응 관련 각 주체 신뢰도

(%)



\*자료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1차 조사,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 2020.08.2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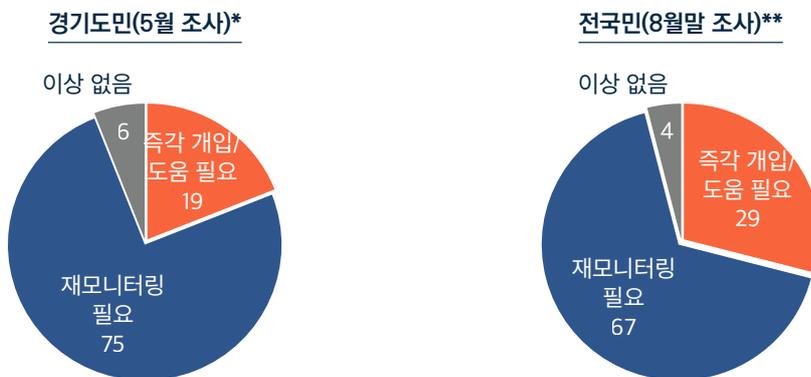
\*\*4점 척도로 질문. 신뢰도 : 매우+약간

## ● ‘즉각 도움이나 개입이 필요한 고스트레스 군’ 29%

- 방치되거나 악화될 경우 개인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어 사전에 예방이 필요한 스트레스 위험 집단을 찾기위한 노력으로 본 조사 연구팀이 트라우마 스트레스 도구를 통해 측정된 결과, 응답자의 29%가 즉각 도움이나 개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남
- 이는 지난 5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서울대 유명순교수팀 공동조사)이 측정한 19%보다 무려 10%p가 증가한 수치임

[그림] 트라우마 스트레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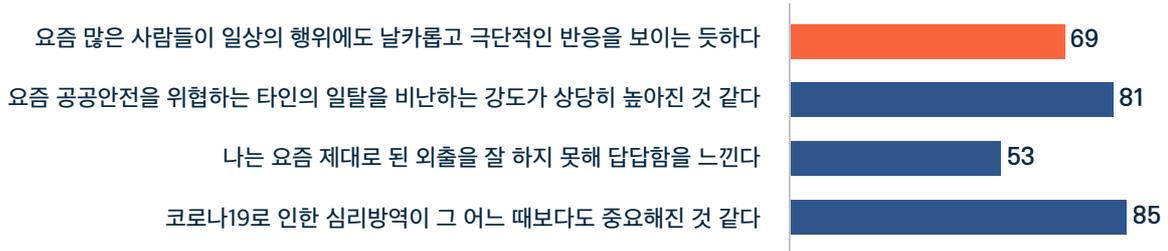
\*자료 출처 :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서울대 유명순교수팀(경기도민 2,589명, 05.18~26)

\*\* 자료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1차 조사,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 2020.08.25~28.)

## ● 코로나블루 현상, '많은 사람들의 일상의 행위에도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다' 81%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코로나 블루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요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타인의 일탈을 비난하는 강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 81%,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행위에도 날카롭고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듯하다' 69%의 응답을 보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감정이 상승하고 있음
- 한편으로, 대부분의 국민들(85%)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것 같다'고 응답해, 심리적인 위로와 치료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그림] 코로나 블루 현상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0 현대인의 정긴건강 및 코로나블루 관련 인식조사', 2020.08.19.(1차조사, 전국 만18~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7.0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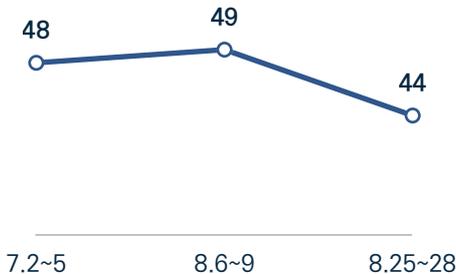
## 2



## 현재 국민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100%기준)과 비교해 44% 수준

- 코로나19로 일상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이전의 일상을 100점, 일상이 완전히 위축이나 정지된 상황을 0점으로 보고 점수를 매기게 한 결과, 44점으로 평가하였음. 이같은 결과는 7월 초, 8월 초 조사 결과 대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실제 일상생활 변화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자유가 제한됐다' 55%, '걷기 등 신체 활동이 줄었다' 51%, '중요한 일정이 변경/취소됐다' 32% 등으로 나타남

[그림]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위축 정도 (코로나 이전 100점, 완전히 위축/정지 1점) (점)



[그림]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상위 5위, 중복 응답)



\*자료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1차 조사,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 2020.08.25.-28.)

3



## 경제 활동 국민 중, ‘실직, 무급휴직, 임금 감소’ 44%

- 경제 활동자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와 임금에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본 결과, ‘임금 감소’ 28%, ‘무급휴가’ 8%, ‘실직’ 9% 로, 전체 경제 활동자 중 44%가 ‘임금 감소’, ‘무급휴가’, ‘실직’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임금 변화 상태(경제 활동자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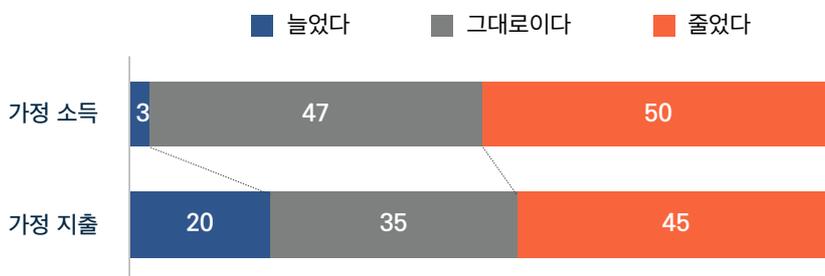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1차 조사,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 2020.08.25.~28.)

\*\*Note : 원 자료는 일반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경제 활동’과 상관 없는 응답자를 제외한 경제 활동 응답자를 기준으로 재계산한 것임

## ● 코로나19 확산 전후 가정 소득 변화, ‘늘었다’ 3%, ‘줄었다’ 50%

- 코로나19 확산 전후에 가정 내 소득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늘었다’ 3%, ‘줄었다’ 50%로 줄었다는 가정이 2가구 중 1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코로나19 확산 전후에 가정 내 지출 변화에 대해서는 ‘늘었다’ 20%, ‘줄었다’ 45%로, ‘줄었다’는 비율이 더 높지만, ‘늘었다’는 비율도 20%나 돼, 앞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구가 3%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가정 소득/지출 변화 (%)



\*자료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1차 조사,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 2020.08.25.~28.)

\*\*늘었다 : 매우+약간, 줄었다 : 매우+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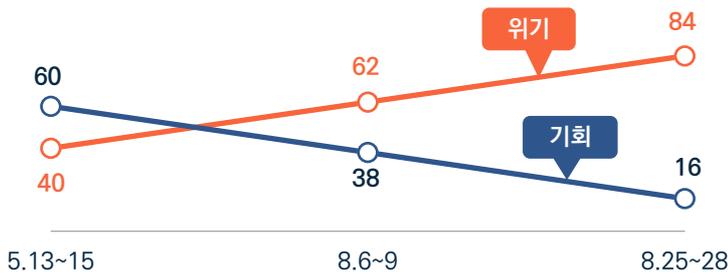
4



## 코로나19로 한국사회는 '위기이다', '5월' 40% → '8월 말' 84%

- 한국사회가 현재 어느 쪽에 서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완전한 위기 1점부터 완전한 기회 10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한 뒤 1~5점 응답은 '위기', 6~10점은 '기회'로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조사 때 위기 인식이 40% 였는데 8월말 조사 때는 84%로 두 배 이상 증가하여, 대부분의 국민이 코로나19로 한국사회가 위기 상태에 놓여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코로나19로 한국사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위기 vs 기회) (%)



\*자료 출처: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1차 조사,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 2020.08.25.~28.)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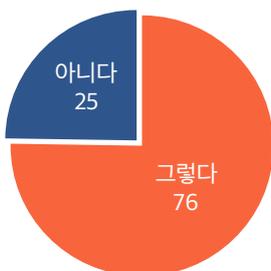


## 국민 4명 중 3명(76%), '인권보다는 방역이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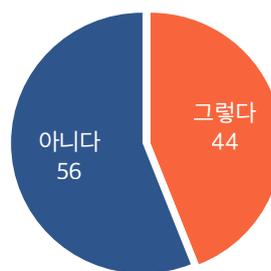
- 우리 국민의 76%는 “방역 대책이 강화돼야 할 때라면 인권 보호는 후순위로 미뤄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인권보다 방역에 더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무리한 방역 대책은 결과적으로 사회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44%가 동의하고 있어, 인권을 침해한 무리한 방역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수 있음

[그림] 방역과 인권에 대한 인식 (%)

방역대책이 강화돼야 할 때라면  
인권보호는 후순위로 미뤄줘야 한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무리한 방역대책은  
결과적으로 사회 불안을 증폭시킨다



\*자료 출처: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1차 조사,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 2020.08.25.~28.)

## ● 사회적 거리두기 성공을 위한 중요 요인 1위 ‘위반자 처벌법 개정’

-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3개까지 고르게 한 뒤 합해서 집계한 결과, ‘방역을 방해하는 개인/집단 처벌법 개정’이 71%로 압도적으로 1위로 지적돼, 법을 강화시켜서라도 방역을 해야한다는 강한 국민 정서를 읽을 수 있음
- 다음으로 ‘허위 정보, 가짜뉴스 유포 강력 처벌 대책 마련’ 42%, ‘생계 곤란 직종/근로자의 긴급 생계지원 방안 마련’ 41%로 나타나, 가짜뉴스 엄벌과 함께 생계가 곤란해진 국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성공에 중요 요인(3순위 중복 응답, 상위 5위)



\*자료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1차 조사,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 2020.08.2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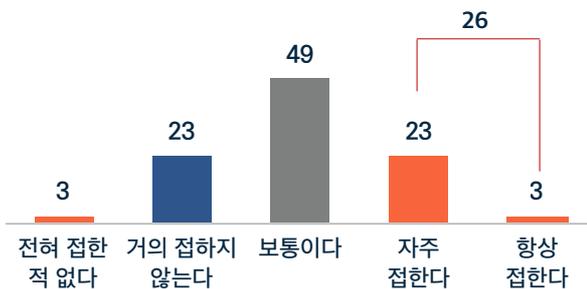
## 6



## 국민 4명 중 1명,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자주/항상 접한다’

- 코로나19 관련, 나중에 허위로 판명난 가짜뉴스, 부정확한 정보, 의도적인 정보 등을 통칭하는 오정보 (misinformation)를 얼마나 자주 접하는지 질문한 결과, 국민 4명 중 1명(26%)은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를 평소 자주/항상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접촉 빈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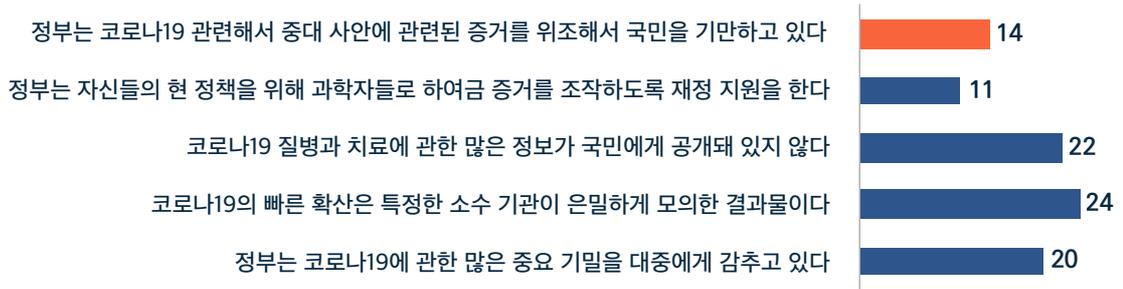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1차 조사,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 2020.08.25.~28.)

## ● 코로나19 관련, ‘정부가 증거 위조해 국민을 속인다’ 14%

-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해 불신하는 국민도 존재하는 바, 관련 주장을 보기로 제시하고 동의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중대 사안에 대해 증거를 위조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14%, ‘정부는 코로나19에 관한 많은 중요 기밀을 대중에게 감추고 있다’ 20%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행위에 대해 불신하는 국민은 20% 안팎 정도로 조사됨

[그림]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응 관련 주장에 대한 동의율\*\* (%)



\*자료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1차 조사,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 2020.08.25.~28.)

\*\*5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임



## 시사점

코로나19가 올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거의 8개월이 다 되어 간다. 2~3월 대구 신천지로 인해 감염자가 급격히 발생해 온 나라가 불안에 떨었으나, 모두의 노력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중 지난 8월, 사랑제일교회 등 확진자의 대규모 발생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는 전환기를 맞은 것 같다.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국민의 일상생활이 코로나 이전의 44% 수준으로 위축되었다는 통계가 말하듯이(5쪽), 답답함과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고, 8월 말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의 44%가 실직, 무급 휴직, 급여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정 경제는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6쪽).

전방위적 위기의 첫 번째가 건강의 위기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언제 어디서 코로나19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우울감이 더 커졌다(4쪽). 분노감이 확산한다는 것도 위기 상황이다. 8월 15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분노의 감정이 크게 늘어났는데(3쪽), 이 분노의 감정은 누구를 위한 분노일까? 본 보고서가 인용한 조사에서 분노 감정을 느낀 이유나 계기를 간단히 적어달라는 개방형 질문을 해보니, ‘비협조’, ‘집단 이기심’, ‘무분별’, ‘무책임’, ‘8.15 집회’, ‘사랑제일교회’, ‘정부의 안일한 대책’,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는 언론’, ‘정부에서 코로나를 방심하는 것’ 등의 응답이 복합적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분노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기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이 위기는 어느 정도는 가라앉겠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를 보는 방식, 타인을 대하는 태도, 경제 활동 방식의 전환, 누군가를 향한 배타적 감정과 혐오의 감정 등이 우리의 생각 밑에 남아서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위기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다.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위기는 단지 교회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도 올 것이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모이지 않게 되면서 신앙의 위기가 왔다. 국가 경제 어려움, 출석 교인 수 하락 등의 요인으로 헌금이 줄어들면서 교회의 재정적 위기도 올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예배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측은 비대면 예배를 낮춰 보거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믿음에 부족한 사람으로 치부할 수 있고, 반면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측은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사람을 이른바 ‘울법주의자’로 몰아 붙일 수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심리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것 같다(69%)는 생각을 하고 있다(5쪽). 이 데이터를 보면서 종교의 기능을 떠올리게 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본연적 기능 중 하나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이다. 국가적 불안감과 분노감이 높아져 있는 이 때 종교의 역할이 중요해 질 수 밖에 없다.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교회가 이 역할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올 추석에 어른들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음(87%)

##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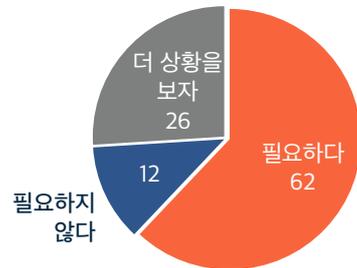
## 올 추석에 어른들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조사전문기관인 톨리언프로가 실시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20년 추석 관련 조사 결과, 우리 국민 2명 중 1명 가까이(46%)가 올 추석에 어른들께 가장 듣고 싶은 말로 '추석에 안 와도 된다'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이번 추석은 건너뛰자' 38%, '이번 추석은 우리가 가마!' 10%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이번 추석 때 정부의 '이동 자제 권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62%, '필요하지 않다' 12%로 나타나 '필요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았고, '더 상황을 보자'는 응답도 26%로 4명 중 1명 꼴임

[그림] 추석 전 어른들께 가장 듣고 싶은 말(상위 4위) (%)



[그림] 추석 때 정부의 '이동 자제 권고' 필요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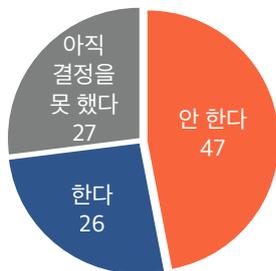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톨리언프로, '애들아, 코로나 추석에는 안 와도 된다', 2020.09.05.(전국, 20-60대 남녀 3,053명, 온라인 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0/09/05/QIKBHOV47FBW5EKEVBKVHAI PFU/>

## ● 올 추석 때, 국민의 절반 가량(47%) '이동 안 한다'

- 추석 연휴 시 이동 계획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47%)가 '이동 안 한다'고 응답했고, '이동한다' 26%, '아직 결정 못 했다' 27%로 응답함
- 이동을 안 하는 이유로는 '이동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높다' 53%, '가족은 코로나 수그러들 때 만나도 된다' 40%, '피로하면 면역력 떨어진다' 26%, '차레는 화상(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13% 순으로 응답함

[그림] 추석 때 이동 여부 (%)



[그림] 이동 안 한다는 이유 (상위 4위, 복수 응답) (%)



\*자료 출처 : 톨리언프로, '애들아, 코로나 추석에는 안 와도 된다', 2020.09.05.(전국, 20-60대 남녀 3,053명, 온라인 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0/09/05/QIKBHOV47FBW5EKEVBKVHAI PF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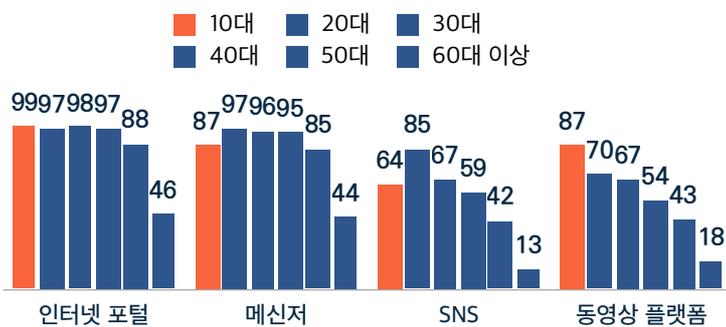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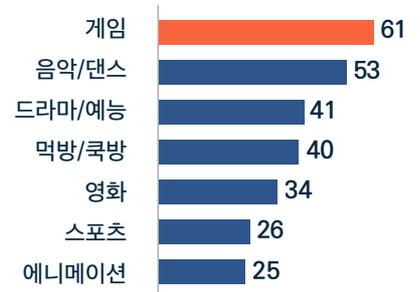
##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음(87%)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연령대별 플랫폼 이용률을 조사하였는데, 플랫폼 중 ‘인터넷 포털’ 이용률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10대’의 경우 ‘동영상 플랫폼’, ‘20대’의 SNS 플랫폼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임
- 10대의 동영상 플랫폼의 콘텐츠 이용률은 ‘게임’이 61%로 가장 높았고, ‘음악/댄스’ 53%, ‘드라마/예능’ 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플랫폼 유형에 따른 연령대별 이용률 (%)



[그림] 10대 동영상 플랫폼의 콘텐츠별 이용률 (상위 7위) (%)



\*자료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Media Issue, 6권 1호', 2020.02.26.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언론 수용자 조사, 5,040명', '2019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2,363명')

## ● 10대의 플랫폼별 뉴스 이용률, ‘메신저/SNS/동영상플랫폼’에서 전체 연령 중 가장 높음

- 플랫폼별 뉴스 이용률에 있어서는 10대와 60대 이상 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인터넷 포털’이 높은 의존도를 보인 반면, 10대는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뉴스 이용 플랫폼은 없어 뉴스 자체에 대한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메신저’, ‘SNS’와 ‘동영상플랫폼’에서 10대는 전체 연령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는데 특히 ‘SNS’와 ‘동영상플랫폼’에서는 타 연령대보다 20~30%p 높게 나타남

[그림] 플랫폼 유형에 따른 연령대별 뉴스 이용률 (%)



\*자료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Media Issue, 6권 1호', 2020.02.26.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언론 수용자 조사, 5,040명', '2019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2,363명')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코  
로  
나  
1  
9

[‘코로나 블루’ 앓는 청년들…2030 자해·우울증 확 늘었다](#)  
한겨레\_2020.09.14.
- 코  
로  
나  
1  
9

[코로나 불황에 상반기 복권 판매 2.6조…2005년 이후 최대](#)  
연합뉴스\_2020.09.16.
- 코  
로  
나  
1  
9

[주요기업 10곳 중 8곳 재택근무…절반 가까이 업무 생산성 차이 없다](#)  
한국경제\_2020.09.13.
- 코  
로  
나  
1  
9

[코로나에 찾아온 국내여행 전성기…방문객 전국 1위 맛집은](#)  
중앙일보\_2020.09.15.
- 사  
회

[방식은 달라도 가치가 모여 실현하는 착한 소비](#)  
한국일보\_2020.09.15.
- 사  
회

[전 세계 163개국 중 ‘살기 좋은 나라’ 1위 노르웨이…한국은?](#)  
동아일보\_2020.09.15.
- 일  
반

[50년 사이 전세계 동물의 68%가 사라졌다](#)  
조선일보\_2020.09.17.
- 일  
반

[50명 이하 교회가 절반 … 약해지는 교단 허리](#)  
기독교공보\_2020.09.14.
- 경  
제

[코로나 저점 뒤 주가 상승 세계 2위 이끈 ‘동학개미’](#)  
한겨레\_2020.09.13.
- 큐  
레  
이  
션

[하루에 악플만 수십만 개… 댓글 청소부는 바쁘다](#)  
조선일보\_2020.09.12.
- 큐  
레  
이  
션

[적나라하게 드러난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  
시사인\_2020.09.14.
- 큐  
레  
이  
션

[나이팅게일! 아프고 가난한 자를 위해, 숫자를 무기로 세상을 바꾸다](#)  
경향신문\_2020.09.15.
- 큐  
레  
이  
션

["희망 버려야 살 길 생겨, 코로나 2~3년 더...생활 태도 바꿔라"](#)  
조선일보\_2020.09.12.

#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1-33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33-58호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 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59-63호

-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과천제일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 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 트로인, (주)하츠, 한국피스메이커,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병희, 이만민, 이미경, 이완중, 이영선,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현주, 장명희, 장우성, 장병우, 장형철, 정종섭, 정준, 전치영,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현,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가나다순)

##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mailto: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mailto: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mailto:jy0113@mhdata.or.kr)

김은선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